

## 오페라 그람시의 시놉시스

### I. 감옥

안토니오 그람시는 감옥에 갇혀 있다. 그는 검사의 위협과 자신의 사상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대해 회상하며, 자신의 지성을 저항의 도구로 삼겠다고 다짐한다. 한 의사가 등장해 겉으로는 동정을 표하지만, 사실 파시스트로서 그람시의 죽음을 바란다.

### II. 길라르차

그람시는 형제 제나로와의 대화 속에서 어린 시절의 사르데냐 섬에서의 생활을 떠올린다. 그들은 그 지역이 얼마나 불우했는지,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투옥되었던 아버지와 현재 가족의 분열에 대해 이야기한다.

### III. 멀리 있는 사람 1

그람시는 모스크바에 있는 아내 줄리아를 꿈꾼다. 그녀의 부재와 침묵은 그를 괴롭힌다. 내적 독백에서 그는 그녀의 사랑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다.

### IV. 가까이 있는 사람 1

줄리아의 여동생 타티아나가 그람시를 방문한다. 그녀는 줄리아의 소식을 전하며 그를 위로하려 한다. 둘은 애뜻한 이중창 속에서 위로와 말하지 못한 애정을 엮어간다.

### V. 어머니

그람시는 어머니를 떠올리며, 어린 시절 그녀의 지원을 회상한다. 상상의 대화 속에서 그들은 선행, 교육,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 가치를 전달할 책임에 대해 논의한다.

### VI. 무솔리니

이탈리아 의회에서 그람시는 무솔리니와 대면하며, 파시즘의 폭력과 무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다. 무솔리니는 그람시를 조종하려 하지만 실패한다. 이 장면은 두 인물의 성격과 이념의 대조를 보여주는 강렬한 이중창으로 끝난다.

### VII. 모스크바

그람시는 스탈린과 톨리아티와 함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당 노선을 논의한다. 그람시의 전략적 연합 제안은 스탈린에게 조롱당하고, 톨리아티는 그람시에게 이탈리아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한다.

### VIII. 삶은 쓰는 것이다 1

그람시는 감옥에서 글을 쓸 재료를 받는다. 그는 글쓰기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한다. 실내 합창단은 지식인, 문화, 민중 교육에 대한 그의 사상을 음악으로 표현한다.

### IX. 불구자

그람시는 어린 시절과 신체적 장애로 인한 고통을 회상한다. 어머니와 형제 제나로는 이를 각각 위로와 조롱으로 받아들인다.

### X. 멀리 있는 사람 2

줄리아는 그람시에게 편지를 쓰며, 그들 사이의 단절로 인한 자신의 무력감과 절망을 표현한다. 그녀의 말은 두 사람의 삶의 여건 차이를 보여준다.

### XI. 가까이 있는 사람 2

타티아나는 그람시에게 희망을 전하지만, 그는 자신의 작업이 미완성된 상태와 고립에 괴로워한다. 그녀의 관심은 그에게 짧은 위로를 준다.

## **XII. 삶은 쓰는 것이다 2**

실내 합창단은 그람시의 감옥 수첩에서 발췌한 생각을 표현한다. 그는 파시스트 정부의 문화적 선전을 비판하고 민중을 속이는 메커니즘을 밝힌다.

## **XIII. 형제**

그람시와 제나로는 떨어져 고립 속에서 고군분투한다. 제나로는 그람시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숨겨 충격을 피하려 한다. 그람시는 충성심과 당 내 자신의 역할을 성찰한다.

## **XIV. 죽음**

그람시는 병으로 사망한다. 의사는 냉정하게 그의 상태를 묘사한다. 죽기 직전, 그는 석방 소식을 듣는다.

## **XV. 전설**

상징적인 마지막 장면에서 그람시의 장례식이 묘사된다. 한 목격자는 그람시의 유산, 즉 그의 정직함과 비판적 학문을 회고한다. 이 장면은 개인성과 집단적 기억의 대조를 그린다.